아동학, 유아교육 전공 대학생의 읽기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A Survey of Reading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hild Development or Early Childhood Education

연세대학교 아동 · 가족학과
강 사 박 찬 화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김 길 숙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Lecturer : Chan Hwa Park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Research Fellow : Gil Sook Kim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연구결과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ading habits, reading patterns and reading motivation of 362 college students from the capital area majoring in child development or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70 percent of students spent less than three hours a week on reading academic or school-related material, and 75 percent spent less than three hours a week on independent or recreational reading. Students most preferred reading the "cultural" genre and least preferred reading the "human life(spiritual)" genre. The "cultural" and the "human life(spiritual)" genres also represented the most and least frequently read genres, respectively. Secondly, students presented high-level reading patterns, in that they previewed the reading material before reading, understood the meaning of it during reading, and shared their reading experience with others after reading. Thirdly, the average reading motivation levels scored near the midpoint on a five-point scale. Fourthly, students with higher reading motivation levels displayed higher reading frequencies and preference levels for each genre, with the exception of the "fiction and humor" genre. Moreover,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reading motivation received higher ratings for their reading patterns.

주제어(Key Words) : 읽기습관(reading habits), 읽기패턴(reading patterns), 읽기동기(reading motivation)

Corresponding Author : Gil Sook Kim,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3395-8238 Fax: +82-2295-8238 E-mail: kgsqueen72@gmail.com

Ⅰ. 서 론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의 기반이 되는 것은 개인의 문해 능력이며 이것은 독서를 통해서 가장 잘 길러질 수 있다. 읽기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읽기능력이 학교에서의 성공 뿐 아니라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읽기능력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자기실현 및 직업에서의 성공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Anderson, Hiebert, Scott, & Wilkinson, 1985). 대부분의 성인들은 정보를 얻거나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알기 위해서 또는 읽는 즐거움 때문에 신문, 잡지 및 책을 읽는데, 개인의 다양한 읽기활동 및 독서량은 개인의 읽기능력과 상호관련성이 있다(Stonovich, 2000). '200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문화관광부, 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1년 동안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은 경우)은 2009년 기준으로 1994년 이래 최저치(71.7%)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서량은 연평균 10.9권이며 독서시간은 평일 28분, 주말 29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현상은 TV, 인터넷과 휴대폰 이용과 같은 영상 · 정보매체 이용시간의 증가로 인해 여가시간에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는 시간이 줄어든 점에 그 원인이 있다(문화관광부, 2009; Mokhtari, Reichard, & Gardner, 2009).

대학 기간은 전공서적 및 교양서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독서는 대학생활의 필수적 실천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며 가치 있고 보람된 지적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길, 2006). 대학생의 독서실태에 관한 연구(박정길, 2004, 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1일 독서 시간은 1시간 미만이 전체의 73.5%이고 2시간 이상이 8.6%로 나타나 일본 대학생의 하루 독서 시간인 3.8시간의 1/4 수준에 불과하였다.

개인의 읽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읽기시간' 뿐 아니라 개인이 읽기자료를 얼마나 자주 읽고, 얼마나 유창하게 읽고 어떤 읽기자료를 선호하는가에 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Scales과 Rhee(2001)는 이러한 것을 개인의 '읽기습관' 으로 규정하고 성인의 읽기습관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성, 인종과 교육수준을 들었다. '읽기습관' 의 하위범주인 '읽기빈도' 에서는 대학 졸업자가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보다 읽기자료를 더 자주 읽었으며 대학원 졸업자의 읽기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성, 연령과 취업유무에 따라 읽기빈도가 차이 나지 않았다. 읽기습관의 또 다른 하위범주인인 '읽기선호도' 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잡지 읽기와 이메일과 채팅을 가장 선호하였으며(Gallik, 1999), 읽기자료로 유머, 최근의 사회적 사건, 전기나 역사와 같은 사실적 자료, 흥미로운 픽션, 문화, 인물, 스포츠, 종교에 관한 자료 순으로 읽기선호도를 보였다(Schutte & Malouff, 2004).

'읽기패턴' 은 독자가 읽기자료를 '읽기 전' , '읽는 동안' 과 '읽은 후' 에 하는 읽기행동을 일컫는다. '읽기 전' 단계의 행동은 독자가 읽는 목적을 설정하고,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읽는 동안' 단계의 행동은 독자가 읽기자료에서 모르는 어휘를 확인하고 읽기자료의 난이도를 인식하고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다. '읽은 후' 단계의 행동은 읽기자료의 내용을 타인과 공유하고 그 내용을 다른 것과 연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읽기패턴은 읽기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더 자주 읽고 유창하게 읽을수록 읽기 전에 자주 읽는 목적을 생각하고 본문을 미리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읽는 동안에 모르는 어휘를 더 자주 확인하였으며 읽기자료의 의미를 더 잘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반면에 읽기자료를 읽는 빈도가 적고 덜 유창하게 읽을수록 읽기자료를 더욱 어렵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더 자주 읽을수록 읽은 후에 읽기자료를 다른 사람과 더 자주 공유하고 다른 것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Scales & Rhee, 2001).

일반적으로 동기는 행동을 활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몰입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읽기동기' 는 몰입적 읽기의 중심이 되는 특징이다(Schutte & Malouff, 2007). 덜 동기화된 독자는 읽는데 시간을 적게 소비하고 인지적 노력을 덜 하며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Guthrie & Wigfield, 2000). 읽기동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분된다. 내적, 외적 동기 모두 읽기 향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할지라도 개인의 흥미와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내적 동기는 장기적으로 자발적 읽기를 강화한다. 읽는 동안 요약, 자기-점검과 추론하기와 같은 복잡한 전략들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읽기에 대한 강한 내적 동기가 필요하다(Metsala, Sweet, & Guthrie, 1996).

Schutte와 Malouff(2007)는 아동 읽기동기 질문지(Wigfield & Guthrie, 1997)와 읽기몰입 이론을 바탕으로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의 읽기동기를 4가지 차원으로 추출하였다. 첫 번째 차원인 '자아의 일부로서의 읽기' 는 읽기를 자아나 정체감의 필수적인 한 부분으로서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두 번째 차원인 '읽기 효능감' 은 효율적 읽기를 하는 독자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어려운 자료를 읽는 것을 좋아하거나 회피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자아의 일부로서의 읽기' 와 '읽기 효능감' 은 개인의 동기유형을 보여주는 자기-결정 연속체(Ryan & Deci, 2000) 상의 내적 동기의 끝 지점에 위치한다. 세 번째 차원은 '학업이나 일에서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읽기' 로 읽기 그 자체보다 학업이나 일에서의 성취

를 위해 읽기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읽기는 기능적 차원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읽기를 도구로서 사용하며 자기-결정 연속체상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네 번째 차원인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읽기'는 타인의 통제 하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읽기와 관련이 있으므로 자기-결정 연속체상 외적 동기의 끝 지점에 위치한다.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읽기동기와 읽기를 즐기는 정도 및 읽기빈도와의 상관을 살펴본 Schutte와 Malouff(2007)의 연구에서는 읽기동기 총점은 읽기를 즐기는 정도, 읽기빈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읽기동기는 여가적 읽기와 학업 및 일과 관련된 읽기에 소비한 시간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읽기동기는 일반 성인과 대학생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생이 일반 성인에 비해 읽기동기의 총점, 읽기동기의 하위범주인 읽기 효능감,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읽기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금까지 읽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동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풍부한 독서가 요구되는 대학생의 읽기습관, 읽기패턴이나 읽기동기는 관심을 받지 못하여 왔다. 그로 인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읽기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국내 대학생의 독서 부진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지해 줄 실태 파악 연구조차 미흡하다(박정길, 2004, 2006). 이에 우선 대학생의 독서 및 읽기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이나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로 아동학이나 유아교육 전공자는 미래에 유아 교사나 보육교사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교사 자신의 건전한 읽기습관과 읽기태도는 읽기모델이 되어 아동의 올바른 읽기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 풍부한 교실문해환경을 조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동학이나 유아교육 전공자는 아동상담 분야, 아동복지 분야, 또는 아동관련 산업체와 같은 현장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인격과 폭넓은 교양을 갖추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읽기 자료를 통하여 전공지식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지식의 습득을 함으로써 획득되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이나 유아교육 전공 대학생의 읽기습관, 읽기패턴, 읽기동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독서부진의 해결 방안 및 독서 장려를 위한 여러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의 읽기습관은 어떠한가?
2.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의 읽기패턴은 어떠한가?
3.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의 읽기동기는 어떠한가?
4.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의 읽기동기의 수준에 따라 읽기습관과 읽기패턴은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 8개 대학교(4년제)의 아동학 및 유아교육학 관련 전공 대학생 362명이었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20.6세(SD = 2.58)였으며 17세에서 42세까지의 연령 분포를 보였고 남학생(M = 21.2, SD = 2.60)이 여학생(M = 20.6, SD = 2.58)보다 평균연령이 약간 높았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자가 328명(90.6%), 남자가 34명(9.4%)으로 대부분 여학생이었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이 122명(3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학년이 105명(29.0%), 2학년이 83명(22.9%), 4학년이 52명(14.4%)의 순이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남자(n = 34)	여자(n = 328)	전체(n = 362)
연령(세)	$M(SD)$ 범 위	21.2(2.60) 18-28	20.6(2.58) 17-42	20.6(2.58) 17-42
학년 (빈도(%))	1학년	12(35.3)	93(28.4)	105(29.0)
	2학년	11(32.4)	71(21.7)	83(22.9)
	3학년	7(20.6)	115(35.2)	122(33.7)
	4학년	4(11.8)	48(14.7)	52(14.4)

본 연구의 아동학 및 유아교육 전공 대학생이 여가시간 동안 하는 활동 3가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이들은 여가 시간동안 TV나 비디오 시청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76.7%), 그 다음으로 컴퓨터 사용(60.2%)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반면에 여가시간에 독서를 하는 경우는 26.8%로 전화하기(35.4%), 쇼핑하기(31.9%), 음악회 관람 및 음악듣기(30.4%)보다 더 적은 시간을 글이나 책을 읽는데 사용하였다.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 중 1순위에 응답한 것을 살펴보면 TV나 비디오 시청(47.5%)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컴퓨터 사용(20.4%), 음악회 관람 및 음악듣기(8.8%), 전화통화(8.0%) 순이며 독서(7.5%)는 여전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2. 연구도구

1) 읽기습관 질문지

본 연구에서 읽기습관은 '읽기에 투자한 시간', '읽기선호

〈표 2〉 연구대상의 여가시간 활동의 우선순위

(*N* = 362)

활동(빈도(%)) \ 우선순위	1	2	3	계
TV 및 비디오 시청	172(47.5)	74(20.4)	32(8.8)	278(76.7)
컴퓨터 사용 (게임, 인터넷)	74(20.4)	102(28.2)	42(11.6)	209(60.2)
전화통화	29(8.0)	35(9.7)	64(17.7)	128(35.4)
쇼핑하기	23(6.4)	30(8.3)	62(17.2)	115(31.9)
음악회 관람 및 음악듣기	32(8.8)	31(8.6)	47(13.0)	110(30.4)
독서 (신문, 책, 잡지)	27(7.5)	32(8.8)	38(10.5)	97(26.8)
운동하기	18(5.0)	17(4.7)	15(4.1)	50(13.8)
요리하기	7(1.9)	4(1.1)	12(3.3)	23(6.3)
글쓰기 (일기, 수필, 메모)	7(1.9)	7(1.9)	9(2.5)	23(6.3)
기타	17(4.7)	10(2.8)	10(2.8)	37(10.4)

주. 전체 연구대상 수와 각 순위 별 인원수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일부 연구대상이 3가지 활동을 순위별로 표시하지 않고 여러 활동을 동일 순위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

도', '읽기빈도'로 규정하였다. 우선 읽기에 투자한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1주일 동안 '학업적 읽기(학업과 관련된 책이나 읽기자료 읽기)'와 '여가적 읽기(학업과 관련 없는 책이나 읽기자료를 자발적으로 읽기)'를 한 시간을 평정하게 하였다.

'읽기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Schutte와 Malouff(2004)가 사용한 '대학생의 읽기자료 선호도 측정 질문지'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읽기자료를 신문/잡지/인터넷 기사, 비소설, 소설의 세 장르로 나누어 각 장르에 속하는 읽기자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문항은 총 21문항으로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좋아한다'까지 Likert 양식의 5점 척도에 반응하였다. '읽기선호도'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81이었다.

'읽기빈도'를 묻는 질문지 또한 총 21문항이며 읽기선호도 질문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읽기자료를 신문/잡지/인터넷 기사, 비소설, 소설의 세 장르로 나누어 각 장르에 속하는 읽기자료를 얼마나 자주 읽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은 '전혀 읽지 않는다'에서 '매우 자주 읽는다'까지 Likert 양식의 5점 척도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읽기습관 질문지의 '읽기빈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이었다.

2) 읽기패턴 질문지

대학생의 '읽기패턴'을 살펴보기 위하여 Scale과 Rhee(2001)의 '읽기패턴 질문지(Reading Patterns Questionnaire)'를 우리나라 문화와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Scale과 Rhee(2001)의 연구에서는 질문지의 문항 수가 총 31문항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상황에 맞지 않는 3문항(예: 한 단어를 의미 단위로 나누기)을 제외한 총 28문항이었다. 읽기패턴은 읽기자료를 '읽기 전', '읽는 동안', '읽은 후'의 3가지 하위범주에서 독자가 하는 읽기 관련 행동을 말한다. '읽기 전' 6문항, '읽는 동안' 16문항, '읽은 후' 6문항으로 구성된다. 참여자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에서 '자주 그렇게 한다'까지 Likert 양식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읽기패턴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9이었다.

3) 읽기동기 질문지

대학생의 '읽기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utte와 Malouff(2007)가 개발한 '성인 읽기동기 척도(Adult Motivation for Reading Scale)'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성인 읽기동기 척도'는 총 21문항, 4가지 하위 범주로 구성되었는데 '자아의 일부로서의 읽기' 8문항, '읽기 효능감' 6문항, '인정받기 위한 읽기' 3문항, '학업이나 일에서의 성공을 위한 읽기'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양식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이었다.

3. 연구 절차

질문지 문항의 내용 타당성 및 문항의 명료성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학 관련 박사 2명, 박사과정생 2명, 석사과정생 4명이 문항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읽기 자료의 선호도 및 읽기빈도를 묻는 질문에서 기간을 명시('지난 6개월 동안을 고려하여')하였다. 읽기동기 질문지 문항에서 '주변 사람들은 때때로 나의 독서량을 보고 놀란다.'는 '주변 사람들은 때때로 나의 독서량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란다.'로, '학업을 하는 데서 얼마나 독서를 효율적으로 잘 했는가가 나타난다.'는 '독서를 효율적으로 잘 했는가가 학업을 통해서 나타난다.'로 수정하는 등 모호한 문장을 명료화하였다.

수정된 질문지의 작성 소요 시간 및 절차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0년 5월 23일에 Y대학 아동·가족학과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를 작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15~20분 정도였으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조사는 2010년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연구자가 각 학교를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총 366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무응답이 많은 4개의 질문지를 제외한 36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7.0 윈도우용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은 빈도, 백분율, 문항평균, 표준편차, 다변량분석을, 연구문제 2, 3은 문항평균, 표준편차,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4는 읽기동기의 총점을 기준으로 상·하 각 33.3%에 해당하는 대상을 추출하여 상하 집단으로 이등분한 후 t 검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학생의 읽기습관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의 읽기습관을 '읽기에 투자한 시간', '읽기선호도'와 '읽기빈도'의 세 가지 하위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읽기에 투자한 시간

〈표 3〉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학업과 관련된 읽기에 '1시간에서 3시간 미만' 투자한 경우가 전체 대학생의 37.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시간 미만'을 투자한 경우가 31.8%로 전체 대상의 69.6%가 3시간 미만의 학업적 읽기를 하였다. 여가적 읽기(자발적 읽기)에 사용한 시간은 '1시간 미만'이 3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시간에서 3시간 미만'이 35.9%로 전체 대상의 74.9%가 3시간 미만의 여가적 읽기를 하였다.

〈표 3〉 1주일 동안 읽기에 투자한 시간

(N = 362)

항목	시간	인원수(%)
학업과 관련된 읽기	1시간 미만	115(31.8)
	1시간-3시간 미만	137(37.8)
	3시간-5시간 미만	50(13.8)
	5시간-7시간 미만	26(7.2)
	7시간 이상	33(9.1)
여가적 읽기 (자발적 읽기)	1시간 미만	141(39.0)
	1시간-3시간 미만	130(35.9)
	3시간-5시간 미만	47(13.0)
	5시간-7시간 미만	24(6.6)
	7시간 이상	20(5.5)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이 일주일 동안 읽기에 투자한 시간이 학년에 따라 차이 나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학업적 읽기에 투자한 시간의 평균은 5점 만점 중 2.24점(SD = 1.23)이며 1학년과 3, 4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F = 4.60, p < .01)를 보여 1학년이 3, 4학년에 비해 학업적 읽기를 하는데 더 적은 시간을 보냈다. 여가적 읽기에 투자한 시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06(SD = 1.14)으로 학업적 읽기에 보낸 시간보다 적었다. 여가적 읽기에서 4학년과 1, 3학년 간에 차이(F = 6.58, p < .001)를 보여 4학년이 1학년과 3학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표 4〉 학년별 읽기에 투자한 시간의 차이검증

(N = 362)

영역	학년	n	M	SD	F
학업적 읽기	1	105	1.82a	1.00	4.60**
	2	83	2.28	1.28	
	3	122	2.43b	1.34	
	4	52	2.56b	1.13	
	총합	362	2.24	1.23	
여가적 읽기	1	105	1.92a	1.12	6.58***
	2	83	2.22	1.25	
	3	122	1.88a	.98	
	4	52	2.48b	1.21	
	총합	362	2.06	1.14	

주. a, b는 Scheffé검증결과, p < .05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p < .01. ***p < .001.

2) 읽기선호도 및 읽기빈도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읽기자료에 대한 선호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읽기자료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21개의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KMO(Kaiser-Mayer-Olkin)와 Bartlett검정을 실시한 결과, KMO값은 .747이었으며 Bartlett구형성 검정결과도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요인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ing)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회전에 있어서는 베리맥스(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고유값(eigenvalue)이 1이상인 요인이 6개가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에 대한 고유값(eigenvalue)은 4.54, 2.87, 1.70, 1.60, 1.41, 1.11이었다.

요인 1은 '소설 및 유머'로 미스테리, 스릴러 및 탐정 소설, 공상과학, 연애, 공포와 유머를 소재로 한 소설, 유머 칼럼이나 만화가 해당되었다. 요인 2는 '역사 및 고전'으로 역사소설, 역사관련 서적, 고전이 포함되었으며 요인 3은 '인문학 및 과학'으로 기술관련 입문서,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및 자연과학 서적 등이었다. 요인 4는 '인간의 삶'으로 전기 및 자서전, 종교 관련 서적, 종교계 기사이었다. 요인 5는 '문화'로 요리와 여행 등의 흥밋거리, 연예계, 문화계 소식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요인 6은 '사회적 사건'으로 사건 기사, 스포츠 보도, 건강 관련 기사이었다. 6개 요인의 회전 후 요인행렬표는 〈표 5〉와 같다.

다음으로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의 읽기습관이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지 요인분석으로 추출된 6개의

〈표 5〉 회전 후 요인행렬표

(*N* = 362)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신문·잡지·인터넷 기사	국가적 및 세계적 사건에 관한 기사						.465
	그 외 흥밋거리 기사(예: 요리, 여행 등)					.722	
	건강 관련 기사						.572
	스포츠 보도						.747
	연예계 기사					.667	
	문화계 기사					.683	
	종교계 기사				.858		
	유머 칼럼이나 만화	.664					
비소설	전기 및 자서전				.443		
	역사 관련 서적		.865				
	종교 관련 서적				.875		
	입문서(여러 기술 관련)			.612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서적			.614			
	자연과학 서적			.792			
소설	미스테리, 스릴러, 및 탐정 소설	.627					
	공상과학 소설	.536					
	역사 소설		.872				
	연애 소설	.632					
	공포 소설	.757					
	유머 소설	.762					
	고전		.701				
	아이겐값	4.54	2.87	1.70	1.60	1.41	1.11
	설명변량(%)	21.64	13.67	8.09	7.60	6.70	5.28
	누적변량(%)	21.64	35.31	43.40	50.99	57.68	63.01

읽기자료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들은 요인 5(문화)에 해당하는 요리, 여행, 연예계, 문화계 소식과 관련된 내용 읽기를 가장 선호하고 자주 읽는 반면, 요인 4(인간의 삶)인 전기 및 자서전, 종교 관련 서적, 종교계 기사에 대한 읽기선호도가 가장 낮고 읽기빈도 역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선호도에 있어서 학년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요인1(소설 및 유머)과 요인3(인문학 및 과학)에서 학년별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요인1은 1학년과 4학년에서 읽기선호도에 차이(F = 6.39, p 〈 .001)가 있었으며 1학년이 4학년보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소설과 유머 및 만화 읽기를 더 선호하였다. 요인3에서는 4학년과 2, 3학년 간에 차이(F = 3.73, p 〈 .05)를 보였는데 4학년이 2, 3학년보다 인문학이나 과학적 지식을 다루는 학문과 관련된 읽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빈도에 있어서도 읽기선호도와 마찬가지로 요인1(F = 4.02, p 〈 .01)과 요인3(F = 4.55, p 〈 .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두 요인 모두 1학년과 4학년 간에 차이를 보였다. 1학년이 4학년보다 여러 종류의 소설과 유머 및 만화를 더 많이 읽었으며, 4학년이 1학년보다 학문과 관련된 읽기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의 읽기패턴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의 읽기패턴은 〈표 7〉과 같다.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의 읽기패턴은 5점 만점 중 3.38점(SD = .50)으로 보통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학생의 읽기패턴이 학년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7 참조〉, 읽기패턴에서 학년별 차이(F = 3.92,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읽기 전', '읽는 동안', '읽은 후' 의 하위범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읽기 전' 을 제외하고 '읽는 동안' (F = 3.65, p 〈 .05)과, '읽은 후' (F = 5.43, p 〈 .01)에서 학년별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읽는 동안' 의 하위 범주인 '의미파악' (F = 3.42, p 〈 .05)에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학년별 차이는 모두 4학년과 1학년 간, 4학년과 3학년 간에 나타나 4학년이 1학년과 3학년보다 점수가 높았다.

3. 대학생의 읽기동기

읽기동기 질문지에서 얻은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의 읽기동기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의 읽기동기는 5점 만점 중 2.82점(SD = .58)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4학년의 읽기동기 점수는 3.08점(SD = .45)으로 가장 높은 반면, 1학년의 읽기동기 점수는 2.67점(SD = .54)으로 가장 낮았다. 읽기동기를 하위범주로 나누어 학년별 차이가 있는지 살

〈표 6〉 학년별 읽기선호도 및 읽기빈도의 차이검증

(N = 362)

영역		학년	n	읽기선호도			읽기빈도		
				M	SD	F	M	SD	F
요인 1 소설 및 유머	유머 칼럼이나 만화 미스테리, 스릴러, 및 탐정 소설 공상과학 소설 연애 소설 공포 소설, 유머 소설	1	105	3.43_a	.78	6.39***	2.96_a	.86	4.02**
		2	83	3.12	.89		2.65	.96	
		3	122	3.21	.87		2.72	.84	
		4	52	2.81_b	.91		2.47_b	.92	
		전체	362	3.20	.87		2.74	.90	
요인 2 역사 및 고전	역사 관련 서적 역사 소설 고전	1	105	2.84	1.08	.75	2.37	1.07	.67
		2	83	2.69	1.09		2.30	.99	
		3	122	2.64	1.01		2.23	.88	
		4	52	2.75	.97		2.42	.96	
		전체	362	2.73	1.04		2.31	.98	
요인 3 인문학 및 과학	입문서(여러 기술 관련)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서적 서적 자연과학 서적	1	105	2.52	.81	3.73*	2.12_a	.89	4.55**
		2	83	2.47_a	.89		2.26	.85	
		3	122	2.48_a	.75		2.25	.81	
		4	52	2.89_b	.78		2.65_b	.86	
		전체	362	2.55	.81		2.27	.86	
요인 4 인간의 삶	종교계 기사 전기 및 자서전 종교 관련 서적	1	105	2.22	.81	2.53	1.99	.80	1.95
		2	83	2.28	.94		1.98	.83	
		3	122	2.25	.91		2.08	.83	
		4	52	2.62	1.00		2.30	.95	
		전체	362	2.30	.91		2.06	.84	
요인 5 문화	흥밋거리 기사(예: 요리, 여행 등) 연예계 기사 문화계 기사	1	105	3.65	.75	.33	3.37	.80	2.20
		2	83	3.66	.86		3.30	.80	
		3	122	3.68	.79		3.53	.76	
		4	52	3.78	.72		3.56	.68	
		전체	362	3.68	.78		3.43	.77	
요인 6 사회적 사건	국가적 및 세계적 사건에 관한 기사 과학이나 건강 관련 기사 스포츠 보도	1	105	2.86	.74	.55	2.75	.70	2.52
		2	83	2.99	.85		2.90	.81	
		3	122	2.96	.71		2.98	.70	
		4	52	2.95	.81		3.04	.77	
		전체	362	2.90	.76		2.90	.74	

주. a, b는 Scheffé검증결과, $p < .05$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p < .05$. **$p < .01$. ***$p < .001$.

펴본 결과, 읽기동기에서 1학년과 4학년 간에 차이(F = 5.93, $p < .01$)를 보여 4학년이 1학년보다 읽기동기가 더 높았다.

읽기동기의 하위범주에서는 '인정받기 위한 읽기'의 범주를 제외하고 모든 하위범주에서 학년 간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아의 일부로서의 읽기'의 범주에서는 4학년과 1, 3학년 간에 차이(F = 4.82, $p < .01$)를 보여 4학년이 1, 3학년보다 '자아의 일부로서의 읽기'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이나 일에서의 성공을 위한 읽기'의 범주에서는 1학년과 3학년 간, 1학년과 4학년 간의 차이(F = 8.62, $p < .001$)를 보여 1학년보다 3학년이, 그리고 1학년보다 4학년이 학업이나 일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읽기를 하려는 읽기동기가 더 높았다. 반면, '읽기 효능감'의 범주에서는 학년 간 차이(F = 2.83, $p < .05$)를 보였으나 Scheffé의 사후검증 결과, 구체적으로 어느 학년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4. 대학생의 읽기동기 수준에 따른 읽기습관과 읽기패턴

1) 읽기동기에 따른 읽기습관

읽기동기에 따른 읽기습관은 요인 1(소설 및 유머)을 제외한 5요인 모두에서 읽기동기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표 9 참조〉. 즉 흥미로운 각종 소설과 유머를 소재로 한 '소설 및 유머' 요인은 읽기동기의 수준에 따라 읽기선호도 및 읽기빈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그 외 다른 요인의 읽기자료들은 읽기동기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읽기선호도와 읽기빈도가 높았다.

2) 읽기동기에 따른 읽기패턴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의 읽기패턴은 읽기동기 수준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표 10 참조〉. 즉, 읽기동기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읽기 전', '읽는 동안', '읽고 난 후' 모든 범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 7〉 학년별 대학생의 읽기패턴 차이검증

(N = 362)

영역			학년	n	M	SD	F
읽기 전	전체		1	105	3.55	.72	1.13
			2	83	3.49	.73	
			3	122	3.52	.66	
			4	52	3.71	.64	
			총합	362	3.55	.69	
	하위범주	읽기목적	1	105	3.30	1.11	.54
			2	83	3.23	1.04	
			3	122	3.19	.94	
			4	52	3.38	.97	
			총합	362	326	1.00	
		읽기preview	1	105	3.60	.72	1.19
			2	83	3.55	.75	
			3	122	3.59	.67	
			4	52	3.77	.64	
			총합	362	3.61	.70	
읽는 동안	전체		1	105	3.30_a	.46	3.65*
			2	83	3.35	.50	
			3	122	3.29_a	.46	
			4	52	3.53_b	.37	
			총합	362	3.34	.46	
	하위범주	어휘확인	1	105	3.20	.66	.71
			2	83	3.17	.61	
			3	122	3.12	.62	
			4	52	3.26	.58	
			총합	362	3.18	.62	
		읽기어려움	1	105	3.11	.84	.86
			2	83	3.23	.71	
			3	122	3.17	.86	
			4	52	3.32	.79	
			총합	362	3.19	.81	
		의미파악	1	105	3.36_a	.56	3.42*
			2	83	3.43	.61	
			3	122	3.36_a	.55	
			4	52	3.63_b	.47	
			총합	362	3.42	.56	
읽은 후	전체	관련짓기 & 공유하기	1	105	3.18_a	.72	5.43**
			2	83	3.30	.79	
			3	122	3.23_a	.68	
			4	52	3.65_b	.71	
			총합	362	3.29	.73	
읽기패턴 전체			1	105	3.33_a	.50	3.92**
			2	83	3.37	.55	
			3	122	3.33_a	.49	
			4	52	3.60_b	.42	
			총합	362	3.38	.50	

주. a, b는 Scheffé검증결과, $p < .05$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p < .05$. **$p < .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의 읽기 습관, 읽기패턴 및 읽기동기가 어떠하며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읽기동기의 수준에 따라 읽기습관과 읽기패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읽기'를 책읽기에만 제한한 경우와 책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읽기자료를 포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용어 사용에서 '독서' 및 '읽기'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책읽기에 국한된 '독서'보다는 다양한 읽기자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읽기'에 중점을 두었다. 즉 읽기자료에 책, 신문과 잡지 외에 인터넷 기사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학년별 대학생의 읽기 동기 차이검증

(*N* = 362)

	영역	학년	*n*	*M*	*SD*	*F*
하위범주	자아의 일부로서의 읽기	1	105	2.68_a	.54	4.82**
		2	83	2.96	1.18	
		3	122	2.83_a	.77	
		4	52	3.27_b	.67	
		총합	362	2.82	.89	
	읽기 효능감	1	105	2.73	.82	2.83*
		2	83	2.69	.58	
		3	122	2.76	.53	
		4	52	2.93	.57	
		총합	362	2.74	.54	
범주	인정받기 위한 읽기	1	105	2.56	.74	1.35
		2	83	2.47	.88	
		3	122	2.69	.79	
		4	52	2.63	.72	
		총합	362	2.59	.79	
	학업 및 일에서의 성공 위한 읽기	1	105	2.67_a	.70	8.62***
		2	83	2.97	.78	
		3	122	2.99_b	.76	
		4	52	3.28_b	.63	
		총합	362	2.93	.75	
	전체 읽기동기	1	105	2.67_a	.54	5.93**
		2	83	2.82	.68	
		3	122	2.82	.55	
		4	52	3.08_b	.45	
		총합	362	2.82	.58	

주. a, b는 Scheffé검증결과, $p < .05$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p < .05$. **$p < .01$. ***$p < .001$.

첫째,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의 읽기습관을 읽기에 투자한 시간, 읽기선호도, 읽기빈도 순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읽기에 투자한 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대학생의 약 70%가 학업과 관련된 읽기에, 약 75%가 여가적 읽기에 각각 3시간 미만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중서부 한 대학의 대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학업적 읽기에 15.19시간, 여가적 읽기에 7.98시간을 사용하고(Mokhtari, Reichard, & Gardner, 2009), 호주 대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비여가적 읽기에 11시간 53분, 여가적 읽기에 6시간 52분을 투자하며(Schutte & Malouff, 2004), 일본 대학생의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이 3.8시간이라는 점(박정길, 2004, 재인용)에서 본 연구의 대학생들이 타국 대학생들에 비해 읽기자료나 책을 읽는 시간이 매우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본연구의 결과, 학업과 관련된 읽기를 하는 데 있어 일주일에 1시간 미만이라고 대답한 대학생이 31.8%에 이른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반영한다. 즉 대학에서의 공부는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스스로 도서관에서 문헌을 찾아 참고하고 연구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이만수, 2004), 위의 결과는 대학생의 자발적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9〉 읽기동기 수준에 따른 읽기습관 차이검증

(*N* = 260)

읽기동기 / 선호도	저(*n* = 130) *M(SD)*	고(*n* = 130) *M(SD)*	*t*값	읽기동기 / 빈도	저(*n* = 130) *M(SD)*	고(*n* = 130) *M(SD)*	*t*값
소설 및 유머	19.22(5.12)	18.79(5.42)	.65	소설 및 유머	15.72(4.91)	16.52(5.82)	−1.20
역사 및 고전	6.82(2.78)	9.65(3.08)	−7.75***	역사 및 고전	5.60(2.38)	8.45(3.08)	−8.36***
인문학 및 과학	6.44(2.16)	8.69(2.40)	−7.94***	인문학 및 과학	5.45(2.12)	7.94(2.71)	−8.25***
인간의 삶	5.94(2.44)	7.81(2.77)	−5.77***	인간의 삶	5.23(2.12)	7.08(2.76)	−6.08***
문화	10.54(2.61)	11.44(2.03)	−3.11**	문화	9.73(2.58)	10.76(2.09)	−3.53***
사회적 사건	8.40(2.28)	9.31(2.20)	−3.27***	사회적 사건	8.16(2.24)	9.25(2.19)	−3.95***

**$p < .01$. ***$p < .001$.

〈표 10〉 읽기동기 수준에 따른 읽기패턴 차이검증

(*N* = 260)

읽기패턴		읽기동기	저(*n* = 130) *M(SD)*	고(*n* = 130) *M(SD)*	*t*값
읽기 전	전체		18.85(4.46)	23.30(3.21)	−9.24***
	하위범주	읽기목적	2.76(1.03)	3.65(.85)	−7.64***
		읽기preview	16.08(3.77)	19.64(2.80)	−8.66***
읽는 동안	전체		49.17(7.06)	57.37(6.06)	−10.06***
	하위범주	어휘확인	8.88(1.72)	10.05(1.86)	−5.26***
		읽기어려움	6.28(1.67)	6.58(1.54)	−1.47***
		의미파악	34.00(6.33)	40.74(4.77)	−9.70***
읽은 후	전체	관련짓기 & 공유하기	17.10(4.22)	22.08(3.85)	−9.93***
읽기패턴총합			85.19(13.93)	102.74(10.54)	−11.46***

***$p < .00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대상은 여가시간에 TV 및 비디오 시청(48%)을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으로 컴퓨터 사용(20%)을 선호한 반면 독서(8%)를 1순위 활동으로 선택한 경우는 매우 낮았다. 즉 약 70%의 대학생이 여가시간에 TV나 비디오 시청과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대학 신입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만수(2004)의 연구에서도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일이 인터넷과 컴퓨터게임 하기 19%, TV 시청하기 13%, 책읽기 12%로 나타났다. '200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문화관광부, 2009)에 의하면 대학생이 포함된 20대 이하 성인의 여가생활에서 인터넷 하기(24%)와 TV보기(21%)가 높게 나타났고, 책읽기와 신문/잡지 보기는 단지 4.6%로 여가시간의 독서 비율은 매우 낮았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독서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독서가 습관화 되지 않고, TV 시청과 컴퓨터 사용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독서할 시간이 부족한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주된 독서저해 요인으로 독서가 습관화되지 않은 점과 독서할 시간의 부족, 인터넷 이용 및 TV 시청으로 시간을 빼앗기는 점을 들고 있었다(김선남, 강혜영, 2007; 박정길, 2004).

읽기시간에서 학년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업적 읽기에서는 4학년과 3학년이 1학년에 비해, 여가적 읽기에서는 4학년이 1학년과 3학년에 비해 읽기시간이 유의하게 많아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적 읽기시간이 많으며 특히 4학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읽기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4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학점에 더 신경을 쓰고 취업준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읽기선호도를 살펴보면 6가지 요인 중 '문화' 요인에 속하는 흥밋거리 기사, 연예계와 문화계 기사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러한 읽기자료는 주로 신문, 잡지와 인터넷 기사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장르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종교관련 기사나 서적, 전기 및 자서전이었다. 대학생의 읽기선호에 관한 Schutte와 Malouff(2004)의 연구에서는 호주대학생들이 유머소설과 신문, 잡지와 인터넷의 유머칼럼, 만화책을 가장 선호하였고, 본 연구의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종교관련 기사나 서적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 대학생의 이러한 양상은 요즘 대학생들이 지적인 호기심을 요하는 교양도서와 전공서적 위주의 읽기보다는 흥미위주의 일회성 기사나 쉬운 책을 더 자주 읽는 성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예로 대학도서관 도서대출을 통해 학부생의 독서경향을 살펴본 결과, S 대학교 학부생이 고전보다는 가볍고 감성적인 무협지, 만화, 판타지 소설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권광희, 2002)는 점은 대학생의 흥미위주의 독서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다.

읽기선호도에서 학년별 차이가 나는지 살펴본 결과 '소설 및 유머' 요인과 '인문학 및 과학' 요인에서 학년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1학년이 4학년보다 여러 종류의 소설, 유머칼럼이나 만화를 더 선호하였으며, 4학년은 2, 3학년보다 입문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또는 인문학 서적을 더 많이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1학년은 학업적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소설류나 가볍게 읽기 쉬운 유머나 만화를 선호하고 4학년은 보다 학문적 부분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또한 학점 관리나 취업 준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읽기빈도를 살펴보면 '문화' 요인에 속하는 연예계 기사, 문화계기사, 흥밋거리 기사를 다른 요인보다 현저하게 자주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요즘 대학생들이 지적 만족보다는 흥미위주의 읽기를 자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읽기빈도에서도 읽기선호도와 같이 '소설 및 유머' 요인과 '인문학과 과학' 요인에서 학년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1학년이 4학년보다 다양한 종류의 소설, 유머칼럼이나 만화를 더 자주 읽었으며 4학년은 1학년보다 입문서, 자연과학,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서적을 더 자주 읽었다. 이러한 결과의 발생은 읽기선호도에서와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의 읽기패턴 전체 점수는 5점 만점 중 3.38점(SD = .50)으로 읽기자료를 읽는 과정에서 사려 깊은 읽기행동을 보였다. 읽기패턴은 독자가 읽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읽기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읽기패턴 전체 점수에서 4학년과 1, 3학년 간에 학년별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하위 범주별로 살펴보면 '읽기 전' 단계에서는 학년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읽는 동안' 단계와 '읽은 후' 단계에서 4학년과 1, 3학년 간에 차이를 보였다. 즉 4학년이 1, 3학년보다 읽는 내용에 대한 의미파악에 주력하며, 읽은 후에는 읽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 내용을 다른 상황과 관련짓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많아 보다 긍정적인 읽기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아동학 및 유아교육 전공 대학생의 읽기동기 전체 문항평균 점수는 2.82점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Schutte와 Malouff(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3.29(SD = .50)점보다 낮아 우리나라 대학생이 약간 더 낮은 읽기동기를 보였다. 이를 하위 범주별로 살펴보면 '학업이나 일에서의 성공을 위한 읽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범주는 '자아의 일부로서의

읽기' 였다. '학업이나 일에서의 성공을 위한 읽기' 는 내적동기와 외적 읽기동기의 중간지점에 해당되며 '자아의 일부로서의 읽기' 는 내적 읽기동기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성숙해질수록 자기-조절력(self-regulation)이 증가하면서 더욱 더 자기-결정적이 되고 읽기 사회화 경험을 통해 점차 읽기행위를 내적 가치체계와 자아감에 통합시키게 되므로 성인의 읽기동기는 내적 동기와 자기-조절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Schutte & Malouff,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아의 일부로서의 읽기' 나 '읽기 효능감' 과 같은 내적 읽기동기에서보다 내적동기와 외적 읽기동기의 중간인 '학업이나 일에서의 성공을 위한 읽기'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읽기동기의 하위범주 중 '인정받기 위한 읽기' 를 제외한 3범주에서 4학년은 다른 학년과 차이가 났으며 특히 '학업이나 일에서의 성공을 위한 읽기'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이 타 학년보다 학업 성취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반영하며, 또한 4학년의 진로 설정이나 취업준비에 학업성취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예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상담을 받은 대학생들이 문제유형으로 지적한 1순위는 '성격문제' 나 '정서문제' 보다 '학업 및 진로문제' 였으며(박제일, 김승환, 2002),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 질 소지가 있다.

넷째, 아동학 및 유아교육 전공 대학생의 읽기동기 수준에 따른 읽기습관과 읽기패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설 및 유머' 요인을 제외한 5개 요인 모두에서 읽기동기가 높은 대학생이 낮은 대학생보다 읽기선호도와 읽기빈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읽기패턴의 모든 하위범주에서도 읽기동기가 높은 대학생이 낮은 대학생보다 보다 사려 깊은 읽기패턴을 보여주어 읽기자료를 읽기 전에 읽는 목적을 인식하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며, 읽는 과정에서 모르는 어휘를 찾아보고 읽는 내용의 난이도를 생각하고 의미파악에 주력하며, 읽은 후에는 읽은 것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 내용을 다른 상황과 관련짓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읽기습관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이들의 읽기동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학 및 유아교육 전공 대학생은 읽기자료나 책을 읽는데 아주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읽기동기도 타국의 대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읽기자료는 교양도서나 고전보다는 흥밋거리나 연예계, 문화계 기사로 종합적 · 논리적 사고를 발전시켜야 할 대학 시기에 말초적이고 단편적 지식에 치중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학시기에 자신의 지적, 정서적, 인격적 바탕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본인 삶의 문제해결은 물론 국가와 사회가 기대하는 전인적 소양과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박정길, 2004)는 점에서 이와 같은 독서부진 현상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초 · 중 · 고등학생의 독서 증진 결과에서 긍정적 함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초 · 중 ·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도서관 이용율 증가와 1교시 수업전의 '아침독서' 시행으로 인해 한 학기 독서율이 2000년 이후 최고(93.7%)를 기록했으며 한 학기 독서량도 1994년 이래 최고 수준인 16.0권을 보이며 독서시간도 평일 45분, 주말 50분으로 성인보다 높게 나타났다(문화관광부, 2009). 이처럼 초 · 중 · 고등학생들의 독서율이나 독서량이 꾸준히 증가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고 이는 대학생이 포함된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 감소의 문제점이 해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독서율 및 독서수준 증진과 읽기동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실천 방안으로 '독서학점 부과제도' 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도는 국내 일부 대학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특히 다학문적 접근을 하는 아동학 및 유아교육학 전공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구체적 방안으로 아동학 및 유아교육학 관련 학과에서는 각 학교의 추천 도서 목록 중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독 최소 권수를 정하고 읽은 책의 독후감을 제출하게 하거나 읽은 책에 관한 평가를 통해 학점을 인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독서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특이한 점은 4학년이 읽기시간, 읽기패턴과 읽기동기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4학년에서 읽기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점관리와 취업준비라는 대학 4학년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4학년이 타 학년보다 학업적 읽기 뿐만 아니라 여가적 읽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질이 학업적 능력 외에 다양한 지식 및 소양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별 연구 대상의 수가 동일하지 않은 점에서 이의가 제기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변인에서 각 학년은 정상분포를 이루었고 학년차이를 보는 변량분석 결과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주일 동안의 읽기시간을 범위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읽기에 투자한 시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른 연구결과와의 엄격한 비교가 어려웠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일주일 동안 매일 읽기자료를 읽은 시간을 시간대별로 직접 기록하게 하는 방식인 '시간-일기식 조사(time-diary survey)' 방법을 사용하여 읽기시간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

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독서경향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대상을 동일 대학, 동일 학년으로 제한하거나 같은 강좌를 듣는 학생들의 독서경향을 수년에 걸쳐 수집하는 등 표집의 편파성 때문에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8개 대학에 재학 중인 아동학 및 유아교육 전공 1~4학년 학생들로 연구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이들의 읽기행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추후에는 타 전공 대학생의 읽기습관, 읽기패턴과 읽기동기를 살펴봄으로써 아동학 및 유아교육 관련 전공 대학생의 읽기행위가 타 전공 대학생과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읽기시간과 읽기선호도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읽기패턴을 통해 읽기과정 중에 독자가 자료를 읽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무엇에 관심과 주의를 두면서 읽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셋째, 읽기동기의 수준에 따라 읽기습관과 읽기패턴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읽기동기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그동안 아동의 읽기동기에 관해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성인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해중재프로그램이나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참여자의 읽기동기 증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4학년이 읽기습관, 읽기패턴과 읽기동기에서 다른 학년과 차이를 보인 원인을 학업성취와 졸업 후 취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읽기습관, 읽기패턴 및 읽기동기와 개인의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선행연구(문화관광부, 2009; 이만수, 2004; Mokhtari, Reichard, & Gardner, 2009)와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생의 인터넷 사용 비율이 독서 비율보다 현저히 높으며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읽기' 관련 변인 뿐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사용하여 학업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읽기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생의 읽기습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권광희(2002). 대출통계로 본 대학생의 독서경향에 관한 연구: 1998-2002년까지 서울대학교 학부생의 대출빈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선남, 강혜영(2007). 대학생의 독서태도와 미디어 활용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36**, 217-240.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연구소.

박정길(2004). 한국인의 독서부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길(2006). 대학생 독서부진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3-22.

박제일, 김승환(2002). 대학생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유형과 성격유형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9**(1), 15-29.

이만수(2004). 대학생 독서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D대학교 신입생 독서실태를 중심 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1). 155-185.

Anderson, R. C., Hiebert, E. H., Scott, & Wilkinson, I. A. G.(1985). *Becoming a nation of readers: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reading*. Washington, DC: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Gallik, J. D.(1999). Do they read for pleasure?: Recreational reading habit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42*(6), 480-488.

Guthrie, J. T., & Wigfield, A.(2000). Engagement and motivation in reading In M. L. Kamil, & P. B. Mosenthal (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Vol. III*.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etsala, J. L., Sweet, A. P., & Guthrie, J. T.(1996). How children's motivations relate to literacy development and instruction. *The Reading Teacher, 49*(8), 660-662.

Mokhtari, K., Reichard, C. A., & Gardner, A.(2009). The impact of internet and television use on reading habits and practices of college.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52*(7), 609-619.

Ryan, R. M., & Deci, E. L.(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Scales, A. M., & Rhee, O.(2001). Adult reading habits and patterns. *Reading Psychology, 22*, 175-203.

Schutte, N. S., & Malouff, J. M.(2004). University student reading preference in relation to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 *Reading Psychology, 25*, 273-295.

Schutte, N. S., & Malouff, J. M.(2007). Dimensions of reading motivation: Development of an adult reading motivation scale. *Reading Psychology, 28*, 467-489.

Stonovich, K. E.(2000). *Progress in understanding reading: Scientific foundations and new frontiers*. New York: Guilford.

Wigfield, A., & Guthrie, J. T.(1997). Relations of children's motivation for reading to the amount and breadth of their read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420-432.

접 수 일 : 2010년 11월 12일
심사시작일 : 2010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월 24일